

PVC, 중국 수요가 밸런스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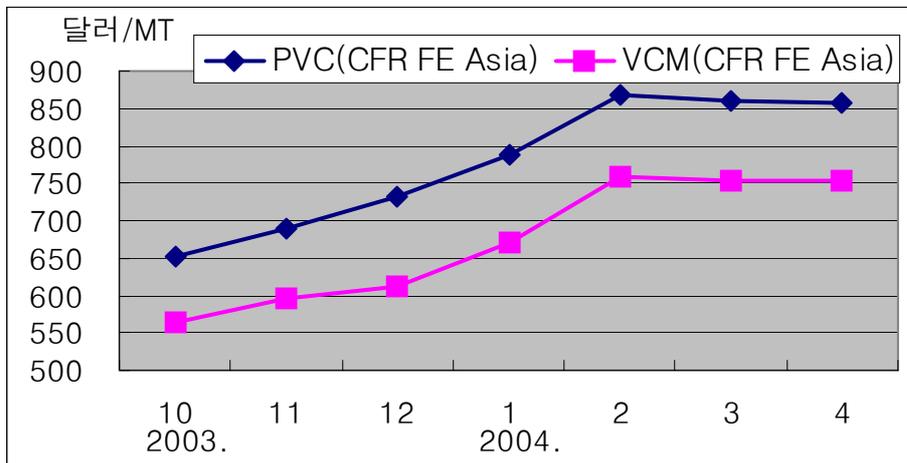
CFR CMP 880달러로 지속적 하락세 ... 저가 중국산 Carbide 때문

2004년 1월 톤당 1000달러까지 내다봤던 PVC 중국 수출가격이 중국의 구매 감소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PVC 무역상에 따르면, 2004년 1월 톤당 950-1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던 PVC 가격은 2월 이후 중국의 구매중단 영향으로 CFR CMP(Chinese Main Port) 88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PVC는 2008년 중국의 북경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건축경기 호황이 예상돼 PVC 특수가 예상됐었는데, PVC는 1월 중국의 설 이후 수입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VC 수출가격 하락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Carbide 공법의 PVC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에틸렌을 기본으로 하는 VCM(Vinyl Chloride Monomer) 공법의 PVC가 수요가 대폭 감소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PVC 가격추이



PVC 무역상은 “중국은 전력이 부족해 Carbide PVC 생산에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의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저가의 Carbide PVC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중국 내수시장 및 국제시장의 PVC 가격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또 2004년 중국의 PVC 수요가 예상보다 적는데 PVC 시장 관계자는 “중국의 PVC 재고가 예상보다 충분하거나 건축경기 호재가 수요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경올림픽을 대비해 도시개발과 서부대개발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10%대의 고신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Polymer의 최대 수요처이다.

중국은 Polymer 수입국 중 가장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기업들은 중국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분류해 공략하고 있는데, 중국 Polymer 무역상들에게 다소 밀리는 감이 나타나고 있다. <김동민 조사기자>

<화학저널 2004/04/29>